성서연구 전제(Assumptions)—내 입장 정리

1. 기독교 핵심은 예수다. 예수 이야기가 허구든(Doherty, *The Jesus Puzzle*/Freke and Gandy, *The Jesus Mysteries*),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든, 혹은 기독교는 하느님/하나님(?)을 말하든 (대중종교), 기독교의 독특성은 예수 이야기에 있다. 고로 예수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빠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핵심이 되어야 한다.
2. 성서의 언어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(죽은 언어), 그것이 가리키는 사건/경험을 통해 말/뜻하는 의미/가치를 전달할 때 그 생명이 되살아 난다.
3. (교회의) 실질적 기능으로서, 성서연구는 기존 신학(교리/고백)을 되풀이 하고자 함이 아니라, 기독교 전통—좋은 의미, 정체성(identity) 문제— 속에서 내 삶을 의미있게 영위하기 위해서다. 기존 기독교에 대한 비판/반성은 우리가 하는 성서연구의 궁극적 목적(goal)이 아니며 [안티기독교인들 입장], 단지 부산물(by-product)일 뿐이다. 아울러 이단 —기득권자의 권력남용—문제는 [기존 기독교인들 입장] 원초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.

9.경계선 없애기 I (4:35-5:43)

	유대인 지역	이방인 지역
풍랑	4:35-41	6:45-52
귀신축출	5:1-43	6:53-56
배척 당함	6:1-6 (고향, 회당)=>3:6	7:1-23
전도여행	6:6b-13 (열 둘 파송)=> 3:13-19	7:24-37 두로, 시돈, 데가볼리, 갈릴리호수
잔치	6:30-44 (Bread and Fish)=>유대인	8:1-10 (Bread and Fish)=>이방인

서론: 바람과 바다 (4:35-41)

- 갈릴리 호수(바다?)를 건넘 (4:35-41; 6:45-51 그 외, 5:18, 21; 6:32; 8:10, 11) =>경계선(이중 문화권)
  - 바람/바다(얌—Ugarit 신화=> Tiamat/Marduk, 바벨론 창조신화)를 꾸짖음=> 고대근동신화에서 저항세력을 물리치는 신의 위엄; 마가복음에서 꾸짖음(1:25; 3:12; 4:39; 8:30, 32, 33; 9:25; 10:13, 48)
  - 막 1:25 (꾸짖다, 잠잠하라=> 더러운 영) => 4:39 (꾸짖다, 잠잠하라=> 바람/바다)
  - "더러운 영" 축출(exorcism)=> 바람/바다 꾸짐음 역시 신학하기가 초점
- 호칭에 대하여. 선생님! (막 4:38) => 주여! (마 8:25)
  - 마태복음에서는 "주"라는 호칭이 신실한 제자의 입에;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경계대상=>막 10:42, κατακυριεύουσιν]. Cf. 눅 8:24 (ἐπιστάτα, master!)
  - 예외: 막 7:28 (수로보니게 여인, Sir!)=> 운명론적 피해망상 (유대사회에서 주종관계 거부)
- **아직도** [어찌] 믿음이 없느냐? (οὔπω ἔχετε πίστιν) 무슨 믿음? (cf. 야 2:19)=>"하느님의 믿음" "하느님을 믿으라"(11:22?) ἔχετε πίστιν θεοῦ ("하느님의 믿음을 가지라")
  - 믿음/복음 [1:14] "하느님의 믿음"=>11:22); 믿음 (2:5; 4:40; 5:34; 10:52; 11:22) => "믿음"이 "구원"을 가져온다(2:5; 5:34; 10:22).
  - πίστις θεοῦ ① "하느님의 믿음"(genitive of subject) ② 하느님을 믿음(gen. of object) ③ 하느님으로부터 (오는/발생하는) 믿음(gen. of source) [참조. The faith of God (Rom 3:3) The righteousness of God (Rom 1:17)
- 서론 역할: 하느님의 믿음/복음=>예수의 믿음/복음=> (제자들의 믿음/복음)이 갖는 신학적 의의

본론. 귀신, 질병의 의미=> 제국주의 신학의 노예

- 1 세기. 세균, 박테리아=>병의 원인임을 모름. 신의 저주, 심판/죄. 고로, 신을 달래기 위한 수단(기도, 굿, 제사.) 발달. 막 "네 죄가 사했느니라" (참고. 요 9:1)

- 21 세기. 암도 치료. 신의 역할 감소. => 성서의 언어 vs, 오늘날의 언어 (재해석: 기록에서 경험으로, 경험에서 뜻/가치로)

A. 거라사 귀신 (Mark 5:1-20)

- 귀신축출=>신학하기 연장선
  -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(5:7) =>
  - 마침 저희 회당에 **더러운 영**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(1:23-24)
-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**더러운 영**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—어디서? (5:8)
  - **거룩한 영**(성령)은 (생각 속에) 들어오는가(καταβαῖνον εἰς αὐτόν 막 1:10) 혹은 임하는가(ἐπ᾽ αὐτόν 마 3:16; 눅 3:22; 요 1:32). Hint: **더러운 영**(귀신)에게, “Come out of him” (ἐξ αὐτοῦ, 1:25).
  - 군대가 사람 몸 속에 들어갈 수 있나? 그럼, 그 참 의미는? (막 1:23-24; 5:7)

1. Place name: Gerasa (Mark 5:1)? Gadara (Matt 8:28)? Gergesa (Origen, 185-254)?
2. Living among the tombs—social outcasts; outside urban areas but easy access to food/sacramental meals offered to the dead
3. Pigs—prohibited/unclean for the Jews (Lev 11:7-8; Deut 14:8);
   - cf. Antiochus Epiphanes; here, a symbol of the Tenth Fretensis Legion stationed in Syria—the Jewish War in 66-70.
   - 베스파시안은 기병대와 많은 보병과 함께 루키우스 안니우스를 거라사 지방에 보냈다. 마을을 공습한 후에 그는 미처 피하지 못한 천 여명의 청년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고 또한 군사들로 하여금 재물을 약탈게 했다. 마침내 그는 주거지를 불사르고 주위 마을로 행군해 나갔다.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도망갔지만, 노약자들은 비명에 갔으며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졌다. 이렇게 전쟁은 산과 들로 퍼져나갔다. [*War*, IV, ix, 1 (486-489)]
   - Echoing the Exodus event (Ex 14:26-31; 15:4-5)=> military image & language—legion; herd, dismiss, charge

B. 이스라엘의 회복(5:21-43)

1. 야이로의 딸 (5:21-25, 35-43)

- 죽었었나?
  - 죽음의 문턱 (막 5:23, "죽게 되었사오니", ἐσχάτως ἔχει) => 남들이 말/판단하는 죽음(35 절)을 무시(36 절)=> 잔다(40 절)
  - 마태복음 9:18 ("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")
  - 누가복음 8:42 ("죽어감이라", ἀπέθνῃσκεν=> imperfect)
- "Sandwich" technique => 혈우병 여인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?

2. 혈우병 여인 (5:25-34)

-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 (5:31)
  - 능력이 그에게서 나감 (τὴν ἐξ αὐτοῦ δύναμιν) => 신령이 그 안으로 들어옴 (τὸ πνεῦμα ὡς περιστερὰν καταβαῖνον εἰς αὐτόν·, 막 1:10)
  - 그렇다면, 예수에게서 나간 것은? (예수의 영/신령=> 여인이 예수의 복음/신학을 공유)
- 여인의 믿음 =>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(5:34)
- 결과를 기록하고 있지 않음 (비교. 마 9:22 => 그 시로 구원을 받음) **** 여인의 믿음이 핵심

3. 숫자의 의미: 12 해, 12 살 => 12 부족 (이스라엘 민족을 상징)

- 12 해 동안 혈우병=> "피"는 생명을 상징[1] (창 9:4-6). 피의 손실 => 생명소실, 죽어감
- 마찬 가지로 12 살 소녀의 죽어감.
-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제국(지배이데올로기) 아래 신음, 죽어감. "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" =>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. 아직도 희망/내일이 있다. (누구의 신학/이데올로기를 따를 것인가? =>결단촉구; 갈릴리로 가라)

Reflections:

- Demystification of demons—identifying/naming demons/ demon possession (Horsley, 147; Wink, 30-35) => 그 실재를 대면 (confront). 예수를 따르려는 우리 앞에 가로 막고 선 내면(이데올로기, 신학)의 정체는?
- 이를 벗어나는/이기는 방법은?

[1] *pace* R. T. France, *The Gospel of Mark*, 235 ("the uncleanness of a menstrual disorder").